

신체활동 놀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희영[†] · 현문학

([†] 부경대학교 · 신도초등학교)

The Influence of Physical Activity o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Hee-Yeong LEE[†] · Moon-Hak HYOUN

[†] Pukyong National University, Sindo Elementary School

(Received January 28, 2005 / Accepted February 18, 2005)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hysical activity o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venty-two students (male 37; female 35) from two classes participated in the experiment. One class served as an experimental group and the other as a control group. The program consists of 16 sessions. Participants completed the Communication Scale and School Adjustment Scal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test and covarianc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physical activity and ones who did not in terms of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Based up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physical activity is effective for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ey Words: Physical activity play, Communication, School adjustment

I. 서 론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놀이에 대한 관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천해 왔으나 오늘날에는 놀이를 아동의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활동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놀이의 중요성은 고대 그리스의 Platon 이래로 많은 교육사상가에 들에 의해 강조되어 왔다. 이들 중 유치원의 창설자인 Froebel은 놀이를 교육의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아 놀이를 교육 활동으로 활용할 것을 주장하였고(Brubacher, 1966), Smilansky(1968)는 놀이를 어린이들이 자신의 경험을 구체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아 중시하였다.

놀이가 아동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1920년대 이래로 놀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그동안에 수행된 놀이 연구는 놀이와 아동 발달의 관계 연구, 놀이를 촉진시키는 요인에 관한 연구 그리고 놀이의 본질 및 연구방법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851, hylee@pknu.ac.kr

로 대별해 볼 수 있다(이숙재, 2004). 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아온 연구 주제는 아동발달과 놀이와의 관계 연구이다.

놀이는 신체, 사회성, 인지, 언어, 정서, 창의성 등 아동의 다양한 발달 영역과 관련하여 연구되어 왔고, 수행된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놀이가 아동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성영호와 권지윤(1998)은 7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운동 놀이 활동이 신체 운동 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신명숙과 정정란(2003)은 60명의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놀이가 협력, 이해, 자기통제 및 또래 상호작용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시자(1995)는 극화놀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이경숙과 유승희(2003)는 전통놀이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놀이와 아동발달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연구가 주로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유아는 아직 언어적 능력과 기술이 미발달된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보다는 놀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유아의 놀이는 곧 학습이고 생활 그 자체이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에서 놀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조수경, 1995). 이런 점에서 볼 때 놀이가 유아의 발달과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Hughes(1999)에 의하면, 놀이는 유아기와 더불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동기와 청년기에도 계속된다. 따라서 놀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이후의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놀이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놀이를 구분하는 유형은 연구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하다. 예를 들어, 정금자(1999)는 놀이를 상상놀이, 감각놀이, 탐색놀이, 창작놀이, 운동놀이, 학습놀이, 종합놀이를 구분하고, 이숙재(2004)는 역할놀이, 주제극 놀이, 운동놀이, 쌓기

놀이, 목공놀이, 조작놀이, 물놀이, 모래놀이, 전래놀이 및 게임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놀이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연구는 특정 놀이 유형 즉 역할놀이에 집중되었다. 아동 발달에 있어 놀이의 영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할놀이 이외의 다른 다양한 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 신체활동 놀이 혹은 운동놀이가 학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어린이에 있어 신체활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신체활동은 아동의 성장에 기초를 형성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교육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Gallahue, 1982), 오늘날 유·초등 교육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김춘일과 김성혜(1998)에 의하면, 신체활동 놀이는 운동기능의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및 언어 발달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체계적으로 계획된 신체활동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런 시점에서 신체활동 놀이가 갖는 교육적 효과를 검토해 보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몇몇 연구자들이 창의성 발달 및 정서 발달과 관련하여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수경(1995)은 만 4, 5세 유아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신체활동 놀이가 창의성의 하위 변인 중 융통성 발달에는 영향을 주었으나 유창성과 독창성에는 영향이 없음을 발견하였다. 송자영(2001)은 6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놀이가 이들의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윤성남(2000)과 박노혁(2003) 또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신체활동 놀이가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주 부족할 뿐 아니라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지 못하다.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놀이와 아동 발달에 관한 많은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예, 김희숙, 1989; Connolly & Doyle, 1984; Humphreys와 Smith, 1987). 이들 중 Humphreys와 Smith는 거친 신체놀이가 아동의 우정 관계를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선행 연구에 의하면, 또래 관계는 의사소통(김성훈, 2000; 김진경과 유안진, 2002)과 학교생활적응(이선영, 2001; 황경미, 1998; Berndt & Hawkins, 1985;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과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초

해 볼 때 신체 놀이는 아동의 의사소통과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놀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체 놀이의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신체활동 놀이는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연구가설 2. 신체활동 놀이는 초등학생의 학교 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 2개 학급 72명(남 37; 여, 35)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아동 36명을 실험 집단으로 하고, 실험 집단과 학급 풍토가 비슷한 1개 학급 아동 36명을 통제 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 실험 도구

가.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

본 연구에 적용될 신체활동 놀이는 아동들의 발달과 흥미에 맞고 기본적인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선행 연구(김검옥, 2001; 김춘란, 2001; 장봉희, 2002)와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를 참고로 하여 구성하였다. 총 16회기로 구성된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의 체제와 내용은 <표 1>과 같다.

나. 의사소통검사

박건자(2001)가 제작한 의사소통검사를 초등학교 아동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순기능적 의사소통과 역기능적 의사소통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로 9문항씩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사소통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및 매우 그렇다(4점)의 4단계로 평정하였으며 순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점수가 낮을수록 의사소통을 잘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측정한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순기능적 의사소통이 .76,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65로 나타났다.

다. 학교생활적응검사

선행연구를 기초로 이영선(1997)이 재구성한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교사-아동간의 관계, 교우 관계, 학습 활동, 규칙 준수 및 학교 행사 참여의 5개 하위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별로 8문항씩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대체로 그렇다(3점) 및 매우 그렇다(4점)의 4단계로 평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 참가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신뢰도 계수

<표 1>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

| 회기 | 놀이 제목 | 활동 내용 | 장소 |
|----|------------|---|-----|
| 1 | 망치기 | 놀이판을 그리고 말을 발로 차서 1에서 8까지 돌아오는 놀이 | 운동장 |
| 2 | 오징어 놀이 | 오징어 모양의 놀이판에서 자기 집에서 출발하여 상대방의 집을 지나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놀이 | 운동장 |
| 3 | 땅콩 놀이 | 땅콩 모양의 놀이판에서 상대방 아동을 끌어내는 놀이 | 운동장 |
| 4 | 세모 돌기 | 세모 모양의 놀이판에서 상대방을 뚫고 자기 편 진으로 돌아오는 놀이 | 운동장 |
| 5 | 통일 놀이 | 통일놀이판에서 통일선을 지나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는 놀이 | 운동장 |
| 6 | 8자 놀이 | 8자 모양의 놀이판에서 두 편이 양감질로 다니면서 싸우고 만세통을 점령하는 놀이 | 운동장 |
| 7 | 달팽이집 놀이 | 달팽이집 모양의 놀이판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상대방을 통과하는 놀이 | 운동장 |
| 8 | 진 놀이 | 진에서 늦게 나온 아동이 먼저 나온 아동의 몸을 쳐서 죽이는 놀이 | 운동장 |
| 9 | 장애물 이어달리기 | 장애물이어달리기 놀이판에서 두 팀이 이어달리는 놀이 | 운동장 |
| 10 | 사자와 얼룩말 놀이 | 장애물을 피하여 얼룩말은 안전지역으로 달려가고 사자는 쫓아가서 등을 치는 놀이 | 운동장 |
| 11 | 빠르게 걷기 | 전 아동이 운동장 트랙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줄로 선 후 시작과 함께 빠르게 걸어서 앞 사람의 등을 치는 놀이 | 운동장 |
| 12 | 말타기 놀이 |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말이 되고 다른 편은 타는 사람이 되어 타서 가위 바위보로 다음 경기를 진행하는 놀이 | 운동장 |
| 13 | 꼬리맞히기 놀이 | 수비 모듬은 손을 잡고 피하는데 공격 모듬은 수비 모듬의 꼬리를 맞히는 놀이 | 운동장 |
| 14 | 간이볼링 놀이 | 간이 볼링 놀이판에 간이 볼링을 두고 공을 굴려서 넘어뜨리는 놀이 | 운동장 |
| 15 | 직사각형 축구놀이 | 직사각형 모양의 경기장에서 칸에 따라 움직임 제한하여 공을 차는 놀이 | 운동장 |
| 16 | 굴렁쇠 굴리기 놀이 | 굴렁쇠를 굴리면서 운동장 트랙을 달려서 다음 아동에게 이어주는 놀이 | 운동장 |

(Cronbach α)는 교사-아동간의 관계(.79), 교우 관계(.71), 학습 활동(.78), 규칙 준수(.78), 학교 행사 참여(.72)로 각각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 수행된 신체활동 놀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었다.

먼저, 두 번째 연구자가 담임을 맡고 있는 1개 반을 실험집단으로, 같은 학년 다른 1개 반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의사소통검사와 학교생활적응 검사를 실시하여 동질집단임을 확인하였다. 그런

다음,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둘째 주부터 4월 넷째 주까지 매주 2회씩 재량시간을 이용하여 매회 40분 총 16회에 걸쳐 집단 놀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사전 검사와 동일한 검사를 실시하였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ver.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설 1과 2를 검증하기 위해 평균 차 검증(t-test)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05의 유의도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놀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래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하여 실험처치 전과 후에 수집된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 검사 점수에 대하여 하위영역별로 평균차 검증을 수행한 결과를 가설별로 제시하였다.

1.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에 앞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의사소통에 대한 사전 점수의 평균차 검증

| 의사소통 | 실험집단(N=36) | | 통제집단(N=36) | | t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순기능적 의사소통 | 24.44 | 4.44 | 24.38 | 3.22 | .62 |
| 역기능적 의사소통 | 18.92 | 3.20 | 18.27 | 4.01 | 1.72 |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24.44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4.38이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6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순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동질 적임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18.92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18.27이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1.7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동질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의사소통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의사소통에 대한 사후 점수의 평균차 검증

| 의사소통 | 실험집단(N=36) | | 통제집단(N=36) | | t |
|-----------|------------|-------|------------|-------|-------|
| | 평균 | 표준 편차 | 평균 | 표준 편차 | |
| 순기능적 의사소통 | 29.31 | 2.89 | 25.19 | 5.77 | 3.82* |
| 역기능적 의사소통 | 14.28 | 2.46 | 17.89 | 3.19 | 5.38* |

*p < .05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29.31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5.19이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3.82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순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14.28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17.89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5.38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역기능적 의사소통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표 2>와 <표 3>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체활동 놀이는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1은 수용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 볼 때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교 아동의 의사소통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신체 활동 놀이에 참가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순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아동들은 놀이 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데 이 때 놀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또래 간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놀이가 또래 간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 집단놀이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의 동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사전 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차 검증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사전 점수의 평균차 검증

| 학교생활적응 | 실험집단 (N=36) | | 통제집단 (N=36)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교사-아동 관계 | 19.69 | 4.57 | 22.33 | 4.00 | 2.61* |
| 교우관계 | 22.22 | 4.18 | 23.28 | 3.67 | 1.14 |
| 학습활동 | 22.86 | 4.70 | 23.14 | 3.80 | .22 |
| 규칙준수 | 24.14 | 4.02 | 24.22 | 3.61 | .01 |
| 학교행사참여 | 23.75 | 4.97 | 23.00 | 3.57 | .74 |

*p < .05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하위 영역별 점수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19.69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2.3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2.61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런 이유로 이 영역에 대해서는 이후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교우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22.22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3.28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1.14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습 활동에 있어서 실험 집단은 평균 22.86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3.14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22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습 활동에 있어서 동질 집단임이 입증되었다. 학교규칙 준수와 관련해서는 실험 집단은 평균 24.14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4.22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01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교규칙 준수에 있어서도 동질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사 참여 영역에서 실험 집단은 평균 23.75이고 통제 집단은 평균 23.00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74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교행사 참여에 있어서 동질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신체활동 놀이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학교생활적응의 교사-아동 관계 영역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사후 검사 점수에 대한 평균차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공변량 분석 및 평균차 검증

| 학교생활 적응 | 실험집단 (N=36) | | 통제집단 (N=36) | | t |
|----------|-------------|------|-------------|------|--------|
| | 평균 | 표준편차 | 평균 | 표준편차 | |
| 교사-아동 관계 | 19.56 | 4.67 | 22.64 | 4.79 | 주1).06 |
| 교우관계 | 27.22 | 2.49 | 23.31 | 3.62 | 5.35* |
| 학습활동 | 25.86 | 2.67 | 24.28 | 3.89 | 2.00* |
| 규칙준수 | 27.03 | 2.98 | 25.22 | 3.41 | 2.40* |
| 학교행사참여 | 27.89 | 2.89 | 24.04 | 3.59 | 4.96* |

*p < .05

주1)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공변량 분석 결과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19.56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2.64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사후 검사 점수가 차이가 있었으나 공변량 분석 결과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이 .06으로 나타나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우 관계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7.22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3.31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5.35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교우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습 활동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5.86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4.28로 나타났다.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2.00으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습 활동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규칙 준수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7.03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5.22로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t값은 2.40으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교행사 참여에 있어서 실험 집단의 평균 점수는 27.89이고 통제 집단의 평균 점수는 24.04로 나타났고, 두 집단 점수간의 t값은 4.96으로 유의도 .05의 수준에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학교행사 참여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4>와 <표 5>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체활동 높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 2는 대체로 수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체 활동 높이가 초등학교 아동의 교사와의 관계를 제외한 모든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 활동 높이에 참여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우관계가 더 원만하고, 학습 활동이 더 활발하였으며, 규칙도 더 잘 준수하고 학교행사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생활적응은 또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많은 보고가 있다(이선영, 2001; 황경미, 1998; Berndt & Hawkins, 1985; Ladd, Kochenderger & Coleman, 1996). 이들에 의하면, 또래 관계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상호 작용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신체활동 높이가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신체 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학생들의 또래 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이들의 학교생활적응을 도왔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신체 활동 높이는 아동간의 신체 활동 높이가 교사와 아동간의 관계 향상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마도 신체 놀이 시 교사는 참여하지 않고 아동들 간에만 놀이가 이루어져 교사와 아동 간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IV. 결론 및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 및 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활동 높이는 초등학생의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둘째, 신체활동 높이는 초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S초등학교 4학년 2개 반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학년에게도 그대로 적용가능한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의 상기 결론은 잠정적인 것으로 받아드려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론이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신체활동 높이가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효과가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초등학교에서 신체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마지막으로 이 분야의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놀이가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볼 때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다양한 발달 영역을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아주 부족하고 특정 영역에 제한되어 있다. 신체활동 놀이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영역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신체활동 놀이 이외의 다른 다양한 놀이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역할놀이와 같은 특정 유형의 놀이의 효과에 국한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아동발달에 대한 놀이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놀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 문헌

김겸옥, 놀이 프로그램이 유사자폐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성훈, 청소년의 또래수용유형과 촉진적 의사소통능력간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진경과 유안진, 시설거주여부,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초기 청소년의 의사소통 기술과 또래관계의 질, 아동학회지, pp.121~135, 2000.

김춘란, 집단놀이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춘일과 김성혜, 유아놀이 프로그램, 교육과학사, 1998.

김희숙, 역할놀이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89.

박건자, 또래상담훈련이 중학생의 의사소통 및 학교생활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박노혁,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신체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성영호와 권지윤, 운동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신체활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논문집, 15(1), pp.577~688, 1998.

송자영, 신체활동놀이가 유아의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신명숙과 정정란, 전통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아동교육, 12(1), pp.33~50, 2003.

윤성남, 초등학교 아동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 지도가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이경숙과 유승희, 전통놀이 프로그램이 아동의 창의성 증진에 미치는 효과, 초등교육연구논총, 19(1), 2003.

이숙재, 유아를 위한 놀이의 이론과 실제 (제3판), 창지사, 2004.

이선영,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영선, 초등학교 아동의 학습된 무기력과 성패 귀인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시자, 극화놀이가 유아의 이야기 이해증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 pp.161~174, 1995.

장봉희, 단체놀이활동이 초등학생의 행동 체력과 인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정금자, 유아놀이지도의 이론과 실제, 교육과학사, 1999.

- 조수진, 신체활동놀이가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 황경미, 초등학교 아동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Berndt & Hawkins, The effects of friendship on student's adjustment after the transition to junior high school.(ERIC Document Reproduction No. ED 255786), 1985.
- Brubacher, T. S., History of problems of education, New York, McGraw-Hill, 1966.
- Connolly, F. A., & Doyle, A. B. Relation of social fantasy pla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pp.797~806, 1996.
- Gallahue, D. L., *Developmental movement experience for children*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 Hughes, F. P., *Children, play, and development* (3rd ed.), Pearson Education Inc, Allyn & Bacon, 1999.
- Humphreys, A. P & Smith, P. K. Rough and tumble, friendship, and dominance in schoolchildren: Evidence for continuity and change with age. *Child Development*, 58(1), pp.201~212, 1987.
- Ladd, g. W., Kochenderger, B. J., & Coleman, C. C.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pp.1103~1118, 1996.
- Smilansky, S., *The effects of sociodramatic play on disadvantaged preschool children*, New York: Wiley, 1968.